

올 한해 전주시정 운영 방향

경제 '살리고' 문화 '넓히고' 세계도 '품고'

경제활성화 기여도 평가제 도입
구도심 문화심장터 프로젝트 체계화
팔복공단 재구성·복지안전망 구축

전주시가 특례시로 지정받고 더 전주다움으로 채워나가겠다는 것은 더 세계적인 도시로 도약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시는 향후 특례시 지정을 통해 대한민국의 리더 도시, 글로벌한 도시로 한 발 더 나아가겠다는 계획이다.

▲경제로 살린다

전주시의 올해 최우선 과제는 경제 살리기다. 시민들이 목말라하는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대표적인 과제로 설정하고 일자리도시를 만드는 데 집중한다.

대표적으로 지역 내 사업이나 정책 등이 추진될 경우 지역 물품 구매율, 지역 하도급 실적,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기여도를 따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경제활성화 기여도 평가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가칭)지역경제활성화 추진단을 구성, 운영할 계획이다.

동시에, 침체에 빠진 지역 건설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하도급 전담팀을 신설하고 지역자재와 지역업체 하도급 비율을 각각 80%와 60%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등 건설업에 활력을 제공하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연수원 건립을 추진하고, 영세 중소기업의 사업기반을 제공할 첨단벤처단지·신산업 융복합 지식산업센터도 건립하기로 했다. 특히, 탄소, 드론, 수소 등 지역특화산업을 중심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는데도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대표적으로, △2025년 드론축구월드컵 성공개회를 위한 인프라 구축 △친환경 수소거점도시 조성기반 마련 △신산업분야 기술 사업화 지원 △탄소소재 상용화 및 기업지원 강화 △금용도시 기반조성 △ICT융복합산업 활성화 및 전주형 스마트시티 구축 △산업단지 구도심을 전라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청년취업포토프로젝트와 청년창업지원 등을 통해 청년들의 소통, 고용·일자리, 복지, 교육·문화 활동 등을 다각적으로 지원하고,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카드수수료 제로화를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문화로 넓힌다

시는 완산권역의 구도심 문화심장터 100만

평과 덕진권역의 뮤지엄밸리 두 축으로 문화영토를 글로벌 문화관광도시로 한 단계 더 도약하는데 힘 쏟기로 했다.

우선, 전주의 역사를 품고 있는 구도심 문화심장터 100만평 프로젝트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대표적으로, 전라감영의 선화당, 내아, 관공각, 연신당, 행랑 등 1단계 복원을 완료하고 왕권을 상징하는 종패지관 복원, 동학농민혁명 복두관과 세계평화의 전당 조성, 풍남문 및 전주부성 일부 복원 추진 등 전주왕조의 발상지, 전라도 중심지의 위상을 확립하기로 했다.

또, 한옥마을에 야간 골목길 투어와 평일·주말 야간상설공연 브랜드화 등 주·야간 문화콘텐츠를 늘려나가고 주민주도형 한옥마을 재생, 여행환경의 질적 성장을 위한 품질인증제 시범운영, 각종 편의시설 조성 등으로 하루 더 머물 수 있는 여행지로 만든다.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와 세계무형유산 전주포럼, 세계슬로포럼 등 3대 국제포럼과 전주국제영화제, 전주비밀박물관, 전주한지문화축제 등 3대 문화축제를 연다. 특히, 전주국제영화제는 20주년을 맞아 역대 최대 규모로 준비해 세계와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로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전주월드컵경기장에 축구박물관 설치를 추진하고 전주실내체육관 신축, 대규모 국제·전국대회 유치, 남북스포츠 교류 확대 등 스포츠산업을 육성한다. 또 '손의 도시 프로젝트'를 통한 수공예 중심도시로 키우고 마당창극 야외공연장 건립, 덕진공원 대표관광지 조성, 전통한지를 중심으로 한 한문화의 산업화·세계화 등 문화브랜드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기로 했다.

▲전주다움으로 세계를 품는다

시는 경제와 문화·관광분야 외에도 도시재생과 창의예술교육, 맑은공기 생태도시, 포용



천안그루 가든시티



전주문화제 야행



전주 국제영화제



팔복예술공장

적 복지, 공유기반 사회적가치 실현 등 중간 강점을 보였던 선도정책을 중심으로 전주다움을 키우겠다는 각오다.

하나하나 집어보면, 60년간 시민들의 일터였던 팔복공단을 팔복예술공장과 팔복 야호 예술놀이터, 팔복 지붕 없는 미술관, 예술기 찻길, 금학천 생태하천 복원 등을 통해 팔복 예술공단과 팔복청년공단으로 재구성함으로써 북부권에 활력을 불어넣기로 했다.

또, 법원·검찰청 부지는 △한국 문화원형 콘텐츠 체험·전시관 건립 추진 △법조심원 기법관 및 법조인 명예의 전당 건립 추진 등을 통해 덕진권역 뮤지엄밸리를 조성하고, 완산권역의 구도심은 △보행친화적 문화거리 조성 등 문화예술 콘텐츠 강화 △서노송예술촌 프로젝트 △전주시 새활용(업사이클)센터

조성 △전주 전통문화 중심의 도시재생 △서학예술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 문화예술로 재생해 구도심 문화심장터 100만평 프로젝트에 힘을 실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도시재생 뉴딜사업 △전주역사 신축 △전주 찻마중길 활성화를 통해 혁신성장의 거점으로 만들기로 했다.

시는 또 민선7기 핵심사업인 △천안그루 정원도시 프로젝트 △미세먼지 저감 맑은공기 선도시 조성 등을 본격 추진하고, △생태동원 조성 △반려동물 친화도시 조성 △친환경 생태하천 조성 △명품 생태공원 조성으로 맑은 공기 생태도시를 만들 계획이다.

특히, 복지재단 '전주사랑'을 중심으로 빈틈없는 복지 안전망을 구축하는 등 섬세한 복지정책을 펼칠 예정이다.

이외에도, 창의적인 예술교육 도시를 만들기 위해 △야동·청소년을 위한 숲놀이터 △책놀이터 △예술놀이터 △야호학교 △부도교육 등 5대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사회적경제와 사회적금융 가치 확산 △사회적부동산·주거 및 혁신적인 주거복지 실현 △사회적농업과 안전먹거리 정책 △공공부동산 사회적가치 실현 등 의미 있는 실험을 지속해나갈 방침이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전주를 더 더 정답게 만드는 일은 전주를 더 세계답게 만드는 일이다. 시민들의 삶에 자부심을 불어넣고 도시의 경쟁력을 드높이는 일이라 생각한다"며, "전주시민들의 가장 행복한 순간인 바로 '지금'과 '미래'를 위해 새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송효철 기자

'신장을 이식해주면 수십억원'

장기매매 시도 50대 붙잡혀

신장을 이식해주면 수십억원을 주겠다고 장기매매를 시도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완산경찰서는 지인에게 신장이식을 대가로 돈을 건넨 혐의(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위반)로 A모씨(55)를 조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모씨는 신장 질환으로 병세가 악화되자 지인인 B모씨(49)에게 "신장을 이식해주면 돈을 주겠다"며 장기매매를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모씨는 신장이식 수술을 받는 대가로 B모씨에게 30억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들은 신장이식을 위해 지난해 8월 전북의 한 병원을 찾았으나 상담에서 혼인 관계에 있을 때 신장 이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2달 후 허위로 혼인신고를 했다.

B모씨는 A모씨로부터 수천만원의 받았으나 지인들의 만류로 신장 이식 수술을 받지 않고 돈을 다시 돌려준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A모씨가 약속 이행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자 B모씨가 경찰에 자수하면서 이 같은 범행이 드러났다. 경찰은 둘 사이에 실제 현금이나 오간 점으로 미뤄 장기매매를 시도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관련자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강석훈 기자

'체육계 미투' 확산하나?

조재범 성폭행 여파

젊은빙상인연대 등

"침묵의 카르텔 넘어서야"

쇼트트랙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심석희 선수(22) 코치였던 조재범의 성폭행 사건과 관련 '체육계 미투(Me Too) 나도 당했다'의 조짐이 보인다.

젊은빙상인연대와 문화연대 등 18개 단체는 1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조재범 성폭행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진상규명, 재발방지 대책 촉구 기자회견'을 열어 성폭력을 방조하는 체육계 침묵의 카르텔을 넘어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해 사회 전 영역에서 미투의 광풍이 몰아칠 때 유독 스포츠 분야는 조용했다"며 "폭행을 당해도 '폭행 사실을 알리면 선수생활 끝이다'는 협박에 그 누구에게도 도움을 청하지 못하고 아무도 심석희 선수를 도와주지 못하는 곳이 바로 대한민국 체육계"라고 지적했다. 이어 "선수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절대적 권력을 행사하는 코치와 감독, 외부 시선으로부터 차단된 폐쇄적 합숙소와 훈련장, 사고가 났을 때 묵묵히 공조하는 침묵의 카르텔까지, 이런 사건이 일어나기에 최적화된 체육계 관행과 성문화가 이번 사건의 본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어렵게 용기를 낸 심석희 선수의 고발이 체육계 미투를 들끓게 한 번저 체육계에 더 이상 이러한 성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에는 뿌리 뽑아야 한다"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단호한 처벌, 그리고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자신의 거래처에서 나무 수십그루 훔친 70대 검거

자신의 거래처에서 나무 수십 그루를 훔친 7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임실경찰서는 피의자 A모씨(75)가 타인 소유 묘목 밭에서 산수유나무 80그루를 훔친 혐의(절도)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나무 유통업자인 A모씨는 지난해 11월 1일 오전 7시경 임실군 임실에서 피해자 B모씨(77)소유의 묘목 밭에서 15년생 산수유나무 80그루(1360만원 상당)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B모씨가 타지로 출타한 틈을 타 굴착기와 트랙터를 동원해 범행했다. 경찰은 목격자의 진술을 토대로 수사를 벌여 A모씨를 검거했다. 경찰조사에서 A모씨는 "(B모씨 밭에)좋은 나무들이 있어 욕심이 났다. 훔친 나무는 시장에 내다 팔았다"며 범행을 시인했다. /강석훈 기자

등, 외부 시선으로부터 차단된 폐쇄적 합숙소와 훈련장, 사고가 났을 때 묵묵히 공조하는 침묵의 카르텔까지, 이런 사건이 일어나기에 최적화된 체육계 관행과 성문화가 이번 사건의 본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어렵게 용기를 낸 심석희 선수의 고발이 체육계 미투를 들끓게 한 번저 체육계에 더 이상 이러한 성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에는 뿌리 뽑아야 한다"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단호한 처벌, 그리고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이들은 △조재범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 처벌, 재발방지책 마련 △감독·외부기관 주도, 민간 전문가 참여 스포츠계 성폭력 문제 전수조사 실시 △빙상연맹, 대한체육회 등 스포츠계 고질적 성폭력 문제 방관, 방조한 기관 책임자 사퇴 △국무총리 산하 '체육단체공정위원회'와 '스포츠윤리센터' 설립 등 감사, 조사, 신고체계 개혁 등을 요구했다. 더불어 체육계 성폭력 근절 공동대책위원회(가칭)를 구성해 성폭력 실태조사와 정책 제안, 대중 캠페인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강석훈 기자

전주시, 농업기술보급사업 23억원 투자

전주시가 농업인들의 소득을 올려 활력 넘치는 전주농업을 실현하기 위해 올해 다양한 농업기술을 보급하기로 했다.

전주시농업기술센터는 올해 과수 생산비용 절감을 지원하고, 농업인 소규모 창업기술 지원에 나서는 등 농업기술 보급을 위한 36개 사업에 총 23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올해 새롭게 추진되는 주요 신기술 보급사업은 △지중 냉온풍 활용 시설 과수 비용절감 시범사업 △가뭄대비발작물 안정생산 시범사업 △수출농산물 생산기반조성 시범사업 △직분사

분부건 활용 복숭아 생력 적화 시범사업 △농업인 소규모 창업기술 지원 등이다.

신청자격은 전주시에 주소를 두고 영농활동을 하는 농업인과 농업인단체로, 참여를 원하는 농업인은 오는 2월 7일까지 각 사업별 필요한 서류를 구비해 농업기술센터 또는 해당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지원대상자는 사업계획서와 사업장 현지조사 등을 거쳐 오는 2월 중 관련 과수 비용절감 시범사업 △가뭄대비발작물 안정생산 시범사업 △수출농산물 생산기반조성 시범사업 △직분사

'주차장도 나눠 써요'

전주시,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

전주시가 도심 내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부설주차장을 개방하는 공공기관과 유류 주차장을 공유하는 민간업체 등에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시는 '전주시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 조례'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도심 주차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유경제 개념을 주차장에 도입한 주차장 무료개방 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이 조례는 지난 2011년 제정된 전주시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개방에 따른 지원 조례를 전면 개정한 것으로, 교통혼잡지역의 유류 주차공간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 공동주택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학교, 종교시설 등의 주차장을 무료 개방하는 소유자와 관리주체에 대해 주차장 시설개선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세부내용으로는 주차난이 심각하다

고 인정되는 지역에서 주간 또는 야간에 10면 이상, 하루 7시간 이상, 주 35시간 이상 2년간 무료로 개방하는 주차장에 대해 무료 개방 지원 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급된 보조금은 주차장 포장공사와 주차면 도색 및 옥외보안등, CCTV 등 방범시설의 설치, 기타 주차편의시설 보수 등에 관한 시설개선비용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장병호 시민교통본부장은 "신규 공공주차장을 만들 경우 부지매입비를 포함해 1면당 평균 4000만 원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민간 유류 주차장을 활용하는 것도 효과적이고 경제적인 방법이다"며, "불법 주차장 감소를 통한 도심지 주차난 해소는 물론, 나눔과 공유 문화 확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